18세기 어머니 행장(先妣行狀) 연구

: 母子의 인정 행위를 중심으로

황수연 *

차례

1. 들어가는 말
2. 18세기 어머니 행장 개관
3. 아들이 인정하는 어머니의 삶
4. 母子의 인정 행위: '인정받기'와 '인정하기'
5. 맺는 말

〈국문초록〉

본고는 18세기 어머니 행장을 어머니와 아들의 인정 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지적 능력과 문자 생활은 평설 및 남편과 아들의 출처와 교우 관계에 대한 충고를 비롯하여 간접적인 정치적 참여로 이어진다.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의 문자 생활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경계하여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였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가족이 조화를 이루고 살 수 있었으며 치산을 담당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아들은 어머니를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물욕에 욕심이 없는 성격으로 형상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했던 근거를 제시한다. 투기 금지와 삼종지도를 주장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유교 질서에 순응하고 실천한 여성이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은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데 일조했다.

어머니는 자신의 삶이 기억되고 '인정받기' 원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행장을 작성한 아들은 '인정하기'를 통해 어머니의 삶을 자신의 시선에

* 홍익대학교 교양과 초빙교수

의거하여 기록하였다. 어머니 행장은 조선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욕망과 가문의 격을 높이는데 일조한 어머니의 공로를 인정한 아들의 욕구가 결합한 글쓰기이다.

핵심어 : 어머니, 아들, 18세기, 어머니 행장, 인정, 가문

1. 들어가는 말

행장은 전장체(傳將體)에 속하는 산문으로 인물의 평생 사적을 기록하는 글이다. 행장은 본래 묘지명을 청하거나 시호(諡號)를 청할 때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실용성이 강하다. 조선 시대의 여성은 특별한 공적을 이루거나 시호를 제정 받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 행장은 생애주기에 따라 한 여성의 출생과 성장, 결혼, 죽음이 구체적으로 서술된다. 조선 시대 행장은 대부분 남성이 주인공이나 17세기 이후 여성 행장이 조금씩 지어지다가 18세기에 이르러 그 수가 증가한다.

18세기 여성 대상 행장은 총 80여 편[1]인데 그 가운데 <어머니 행장>[2]이 30여 편으로 가장 많다. 주지하다시피 17, 18세기에 양반가는 가격(家格)과 가문의 위상을 높여 유교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위선(爲先) 사업에 적극적이었다. 위선 사업의 하나로 남성 조상뿐만 아니라 여성 조상을 기리고자 가장이나 행장을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여성 대상 행장의 양적 증가의 이유 중의 하나로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 행장에 대한 연구는 소략한 편이다. 율곡의 어머니[3]를 비롯하여

1) 18세기 여성 행장은 어머니를 비롯하여 아내, 누나, 딸, 며느리, 여동생, 친척, 지인 등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2) '先妣'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지칭하는 한자 단어이다. 본고에서는 <어머니 행장>으로 명명한다.

3) 김세서리아, 「율곡의 <선비 행장(先妣行狀)에 대한 여성주의 독해-사임당의 보살

김만중의 어머니[4], 민익수의 어머니[5], 윤광호의 어머니 행장[6] 등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7]와 아내 행장[8]과 17세기[9], 19세기 여성 행장[10]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정도이다. 여성 행장 연구는 연구자의 연구 방법과 태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11] 하나는 행장의 사실적 내용을 검토하여 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12]이고 다른 하나는 남성의 시각에서 '재구성된 역사'[13]이고, 여성이 가문의 질서를 재생산해는 데 기여했다고[14] 하여 행장을 비판적 시각으로 다룬 연구이다. 여성 행장은 대상의

핌 행위와 여성주의 보살핌의 윤리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30권, (사)율곡연구원, 2015, 93-118쪽.

4) 황윤정, 「가문 질서의 재생산으로서 여성 행장의 글쓰기 방식 연구-김만중의 <선비정경부인행장>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5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547-580쪽.

5) 김명숙, 「<이부인행록>을 통해 본 조선조 양반가 여성의 삶」, 『동양고전연구』 제39권, 동양고전학회, 2015, 133-161쪽.

6) 이승희,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 <선비정부인박시유ᄉᆞ>의 자료적 고찰」, 『한국문화』 75집,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6, 97-125쪽.

7) 이규대, 「<선비전주이씨행장>을 통해 본 18세기 여성의 생활상」, 『역사민속학』 25,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203-233쪽.; 김영, 「한글 필사본 <광산김씨연행록>의 자료적 고찰」, 『인문사회』 21, 제8권 1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473-486쪽.

8) 이경하, 「망실행장류 연구」, 『한국문화』 40집,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1-26쪽; 이지양, 「조선조 후기 사대부가 기록한 아내의 일생-행장 26편으로 본 내조의 힘」, 『인간 환경 미래』 제7호,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11, 31-57쪽.

9) 한희숙, 「조선 후기 양반여성의 생활과 여성리더십-17세기 행장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9집, 한국여성사학회, 2008, 1-48쪽.

10) 김현미, 「19세기 선비행장류 글에 형상화된 어머니의 가르침-자녀 교육 태도와 교육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439-467쪽.

11) 이승희는 한글본 어머니 행장을 대상으로 서지사항과 국어사적 특징을 다루었다. 김현미는 여러 편의 19세기 어머니 행장을 대상으로 자녀 교육 태도와 교육 양상을 밝혔다.

12) 이지양, 김명숙, 한희숙, 김영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 연구를 통해 양반 여성의 삶과 부부 생활 등에 알 수 있다. 이규대는 여성의 삶을 사회제도와 관련하여 살폈다.

13) 이경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장문과 비지문 등은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는 '사실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중세 남성 지배 질서의 이념과 가치에 의해 선택/배제되고 과장/축소되는 '재구성된 역사'라고 하였다. 이경하, 앞의 논문.

14) 황윤정은 여성 행장이 가문의 구성원들, 특히 여성의 의식을 구성하고 형성하는

전기적 실체를 기반으로 하지만 남성의 시선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행장의 전기적 사실을 거짓으로 볼 근거는 없지만, 남성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와 시선을 갖고 썼는지 헤아리면서 작품을 검토해야 한다. 행장 연구는 사실과 진실을 가려내고 작성자의 시선과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독법이 요구되는 만큼 연구자의 태도에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연구 방법이 어떠하든 연구 대상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행장 전반에 대한 실체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행장을 남긴다는 것은 어머니의 삶을 기록하고 민멸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긴 만큼 아들이 어머니의 삶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한다. 어머니 또한 아들에게 인정받고 역사에 길이 남겨지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었다. 이에 母子의 인정 행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2. 18세기 어머니 행장 개관

어머니 삶을 기록한 글쓰기 양식은 언행기(言行記), 언행록(言行錄), 유사(遺事), 행록(行錄), 행장(行狀) 등이 있다. 이들은 명칭이 다른 만큼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15]

18세기 어머니 행장 중에서 '행장'이라고 명명된 작품은 총 20편이고 언행기 1 편, 언행록 1 편, 유사 5편, 행록 3편으로 총 30편[16]이다.

하나의 방법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여성 행장이 유교 시대의 여성의 노동력과 가문의 질서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했다고 보고 이를 글쓰기 방식을 통해 규명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황윤정, 앞의 논문.

15) 이경하는 행장, 행록, 유사 등이 양식이나 구체적 목적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함께 묶일 만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행장류'로 명명한다고 하였다. 이경하의 지적대로 이들이 공통점을 갖고 있고 작가들도 이들 양식간의 뚜렷한 차이를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장류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각 양식간의 차이를 밝히는 작업이 모여 각 양식의 특성을 밝힐 수 있다면 그것도 행장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그 차이를 간단히 밝혔다.

16) 황수연 외,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권~8권, 보고사, 2010 에 수록된 어머니

권두경은 「어머니 유인 김씨 언행기」[17]에서 선계(先系)를 4대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대신 후계(後系)는 간략하게 기록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행장과 형식이 거의 유사하다. 이종성은 그의 외삼촌 홍치중이 행장을 짓고 조카인 이종성에게 "마땅히 사이사이 빠진 것들을 보충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하자 별도로 「어머니 남양 홍씨 언행록」[18] 을 작성하였다.

유사는 사건이나 평소의 언행을 항목별로 기록하는 글로 여러 이야기들이 나열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계나 후계, 작성자의 언급이 생략된 경우가 많으며 종결의 형태를 갖추지 않기도 한다.

행록은 행장과 글의 구성이 유사한 경우가 많은데 이덕수 「어머니 행록」[19]에는 선계와 후계가 기록되지 않았다. 이덕수는 이 행록을 바탕으로 「어머니 묘지」[20]를 별도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행록에 중복하여 기록할 필요가 없어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민익수는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이부인행록」[21]이라고 명명하고 이재에게 행장[22]을 부탁하고 동생 민우수에게 묘지[23]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민우수는 묘지를 작성하면서 민익수의 '유사' 70여조를 바탕으로 묘지를 작성한다고 하였다. 민익수가 작성한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정경부인언행록」[24]이라는

행장 28편과 자료집에 누락된 최창대의 「先妣遺事」와 민익수의 「李夫人行錄」을 별도로 첨가하여 총 30편이다. 앞으로 인용문은 자료집의 해당 권, 쪽으로 표기한다.

17) 1권 201쪽.

18) 이종성은 "평소 어머니께서 행하셨던 일들 중 기억에 남는 것들을 조목조목 기록하여 행장 왼쪽에 붙이려고 합니다."라고 하며 기존의 행장에 추가할 내용을 별도로 엮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어머니 남양 홍씨 언행록」, 3권 151쪽. 행록과 언행록, 언행기는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언)행록은 주로 행장을 작성하기 전에 대상자의 생애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장에 빠진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쓰였다.

19) 이덕수는 그의 아들 이산배가 쓴 「조모 행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제목만 「선비 행록」으로 바꾸었다. 4권 173쪽.

20) 이덕수, 「어머니 묘지」, 『서당사재』 권9.

21) 민익수, 「이부인행록」, 『여흥민씨가승기략』 권4, 국립중앙도서관.

22) 이재, 「큰외숙모 정경부인 연안 이씨 행장」, 6권 102쪽.

23) 민우수, 「어머니 정경부인 연안 이씨 묘지」, 1권 487쪽.

24) 한글본은 필사 형태로 전한다. 「정경부인이씨언행록」, 규장각.

이름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동일한 글이 작가에 따라 행록, 유사, 언행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언)행록, 언행기, 유사 등은 행장을 짓기 전의 준비 단계에서 작성하거나[25] 행장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작성한 글임을 알 수 있다. 행장이 가장 완결된 형태를 갖춘 글인데 완결된 형태란 선계(先系),생애주기별 일화 및 언행, 후계(後系), 작성자의 찬(讚)이 모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26]

(언)행록이나 유사에 서술된 내용과 기술은 극히 상세한데 (언)행록→ 행장→ 묘지명의 단계를 거치면서 내용이 집중되고 요약된다.[27]행장과 묘지명은 공적인 기록물의 성격을 갖고 있어 공표화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선별되어 작성된다.

2.1 작성 목적

행장 작성자들은 행장의 마지막 부분에 어머니의 삶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비롯하여 글을 작성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심정을 간단하게 표방하기도 한다.

> 아! 우리 어머니 평생의 지극한 행실과 아름다운 덕은 다 자손들의 법이 되며 마을의 법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니, 어찌 다만 여기에서 그칠 수 있겠

25) 최창대는 유사와 행장 모두 직접 작성하였다. 최창대, 「어머니 유사」, 『곤륜집』, 권10; 최창대, 「어머니 행장」, 7권 404쪽.

26) 행장 작성자들은 이들 사이의 차이점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명칭을 붙이기도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대상 인물의 평소 언행과 일화를 항목별로 나열한 언행록이나 유사를 작성하여 다른 사람에게 행장을 부탁하면, 부탁받은 사람이 이를 토대로 내용을 간추리고 선계와 후계, 찬을 보태어 행장을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행장은 다시 묘지명의 자료로 제공된다.

27) 민익수의 「이부인언행록」은 민익수가 작성한 총 74조의 항목에 민우수가 작성한 18항목이 더해져 총 92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편이다. 이재는 이 언행록을 대폭 축약하여 행장을 작성하였다.

> 는가! 불초가 아침저녁으로 골몰하며 우리 어머니에 대해 쓴다 해도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감히 근거 없이 헛되게 과장하지는 않았으니 오직 군자는 가련히 여기고 자세히 살펴 주기를 바란다.
>
> 저 세상에 가신 어머니의 은혜에 만의 하나라도 보답해 내 원통함과 근심을 푸는 것은, 곧 어머니에 관한 글을 남겨 길이 전하는 것뿐이다. 바라건대, 한 마디 말이라도 아끼지 말고 충분히 잘 기록하고 어머니의 묘비에 기록되게 해 여인들의 본보기로 전한다면 불초의 지극한 아픔과 깊은 한이 다소 줄어들 것이다.28)

> 아아! 우리 어머니의 덕행을 광운이 기록하여 후세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동관을 잡는 자가 무엇을 기술하겠는가. 그러나 정신이 아득하고 혼미하여 잊어버린 것이 많음이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미덕을 과장하여 부모를 욕되게 할까 그것이 두렵다. 차례에 따라 기록하였으되 차라리 소략할지언정 부박함은 없다.29)

김주신은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아들로서의 사적 의무와 여인들에게 본보기를 제시한다는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장을 작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주신이 '어머니의 지극한 행실과 아름다운 덕은 자손들의 법이 되고 마을의 법이 될 수 있다'고 한 언급을 통해서는 조선 18세기 '가'가 가족, 가문과 같이 그 범주와 의미가 확장되며 사회와 국가라는 의미를 포괄하였던 사실을 볼 수 있다.30)

오광운은 어머니의 삶을 '동관'을 잡은 자가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동관은 '여성의 역사' 특히 모범적인 여성의 역사 혹은 그에 대한 기술이라는 뜻이다.31) 오광운은 어머니의 삶에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

28) 김주신,「어머니 행장」, 7권 93쪽.
29) 오광운, 「어머니 숙부인 행장」, 2권 242쪽.
30) 김경미, 『家와 여성: 18세기 여성 생활과 문화』, 여이연, 2012, 17쪽.
31) 이경하, 「彤管의 전통, 그 일상의 정치」, 『국문학연구』 제15호, 국문학회, 2007, 82쪽.

부과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어머니의 삶을 과장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기술했다며 일종의 작가적 소명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남유용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1년 후 '행장 하나 없고 묘에는 묘지 하나 없어서 감히 늦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행장을 작성한다. 하지만 자신은 그때 겨우 11살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어 아버지와 외할머니에게 들은 내용을 종합하고 선계와 후계를 보충하여 작성하였다.[32] 그리고 자신이 행장을 짓는 이유가 "어머니의 어짊이 없어진다면 불효의 죄가 무거울 것"이라고 하며 그 이유 또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러 언급을 종합하여 볼 때 아들은 어머니의 삶을 기록하여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불효를 면해야 한다는 의무감[33], 사실을 기록한다는 작가로서의 사명감[34], 후세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전한다는 책임감[35]을 갖고 어머니 행장을 작성했다고 할 수 있다.

아들이 어머니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에는 어머니의 삶에 대한 존경과 인정이 전제된다. 아들은 어머니의 실제 삶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후대에 모범이 될 만한,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언행을 선별하여 행장을 작성한다.

---

32) 남유용, 「어머니 행장」, 3권 307쪽.

33) 박윤원, "만약 사적이 사라진다면 불효한 죄가 더욱 크게 될 것이니 이 때문에 두렵다.", 「어머니 숙인 기계 유씨 행장」, 6권 340쪽; 안정복, "어머니의 아름다운 덕을 기록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나의 불효를 더 무겁게 하는 것이다.", 「어머니 행장」, 8권 288쪽.

34) 권두경, "지금 뽑아 기록한 것은 다만 보고 들은 것이니 만일 넘치거나 사실에 지나친 것이 있다면 또한 내가 심히 병으로 여길 것이다.", 「어머니 유인 김씨 언행기」, 1권 201쪽.

35) 김창흡, "우리 모든 후손들로서 어머님의 규방의 규범에 대해 만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알고 싶은 사람은 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어머니 행장」, 1권 100쪽; 임상덕, "여자의 모범으로 전하여 훗날의 군자로 하여금 나의 어머니가 옛날 성녀의 덕성을 지니셨음을 알게 할 만하다.", 「친어머니 공인 전주 이씨 행장」, 6권 230쪽.

2.2 작성자의 시선

어머니 행장의 작가는 대부분 어머니의 가르침과 보살핌을 받은 아들이고 내용은 아들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삶과 경험이며, 작성 시기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이다.[36]하지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경우 남유용처럼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글을 얻어 작성하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남성의 시선으로 여성의 삶과 경험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실제와 다르거나 드러나지 않는 여성의 삶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여성 행장 작가[37]와 비교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심육은 고모의 언간을 바탕으로, 권만은 아버지의 구술과 외백모의 언간을 바탕으로 행장을 작성하였다. 이 두 사람에게 어머니에 대한 국문 기록을 전해준 사람은 각각 어머니의 시누이와 올케인 여성이었다.[38] 권만이 여성의 글은 두서가 없다고 하며 외백모의 글을 각색하고 수정한 반면, 심육은 고모의 기록을 그대로 실은 후 자신의 글을 조금 보태어 행장을 완성하였다.

심육의 고모가 기록한 두 개의 어머니 일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 올케가 서제에게 젖을 먹이고 있자 아버지가 "네가 이 아이의 유모냐? 네가 젖을 먹이는구나."라고 하자 올케가 아이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나서 대답하길, "며느리가 어찌 유모이겠습니까?"라고 하며 안색을 더욱 부드럽게 하였다. 이에 선군께서 웃으며 자리에 앉으셨다.[39]

---

36) 김춘택은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미리 행장을 작성하였다. 김춘택, 「어머니 행록」, 7권 428쪽.

37) 심육의 경우 여성의 글을 수정 없이 그래도 수용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작가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38) 여성이 행장 작성에 도움을 준 경우는 이 밖에 박윤원과 이덕수, 유언호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윤원, 「장모 행장」; 이덕수, 「어머니 행록」, 유언호, 「부인유사」.

39) 심육, 「정경부인에 추증된 어머니 이씨의 유사」, 2권 176쪽.

> 매번 과거시험의 결과가 나오면 올케는 속상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올케는 일찍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제가 이미 고생은 할 만큼 했고 아직 어린 자손들이 많습니다. 만일 계속 이와 같다면 끝까지 성취가 없을 터이니, 비록 세상에 오래도록 산다 한들 또한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40)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일화를 거론하며 고모는 "만약 화를 잘 내는 젊은 부녀자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유모라는 말에 유감이 없을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휭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올케는 겸손한 말로써 우러러 답하되 기운은 평온하고 말은 정도에 맞았으니, 선군께서 더욱 탄복하고 칭찬하셨다. 그 당시 나는 어려서 잘 몰랐지만, 그래도 그 말과 기운이 바른 데 감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행장에서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심육의 고모는 며느리에게 경솔한 말을 하는 시아버지에 대해 온화한 기운이지만 단호하게 맞받아치는 며느리의 모습을 기술하여 다른 행장에서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부녀자들이 유감을 갖고 집 밖을 나가기도 했던 모습은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과거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그로 인한 초조와 불안감 등을 시누이에게 토로하는 모습도 여성 행장에서 보기 드문 일화이다. 과거에 연연하기 보다는 독서와 학문을 권장하며 집안 경제를 책임지지 않는 남편 대신 가정 살림을 묵묵히 맡아 하는 아내, 어머니의 모습이 여성 행장을 통해 볼 수 있는 익숙한 모습이다.

이덕수의 어머니 청송 심씨는 임종을 앞두고 2편의 글을 남기니 잘 보관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 중에 한 편은 자신의 어머니 한산 이씨에 대한 몇 조항의 유사인데 이덕수가 「선비 묘지」41)에 「부선비수록외왕모유사」를 기록해두었다. 청송 심씨는 "어머니가 문학을 지독하게 좋아하

40) 심육, 위의 글.
41) 이덕수, 「先妣墓誌」, 『서당사재』 권9.

였”42)고 “자손 중에 문학을 잘 하는 사람을 애중한다43)”고 했던 면을 부각하였다.

단편적인 비교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 성급한 감이 있지만 남성들이었다면 굳이 드러내지 않았을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대화와 남편의 과거 낙방에 실망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이야기를 전한 심육 고모의 기록은 남성과 여성의 시각적 차이를 보여주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덕수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를 “문학을 지독히 좋아했다.”고 하는 표현도 여성의 개성적인 면을 별로 드러내지 않는 남성의 시선과 차이를 보인다.

이 두 가지 예는 동일한 여성에 대한 삶을 재구할 때 시선의 차이에 의해 그 여성의 삶과 평가, 그의 삶을 간접 경험하는 다른 여성들의 의식 형성 역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 행장은 남성 행장과 달리 과거 합격 혹은 정계 진출 등과 같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취가 아니라 집안에서 가족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글에 작가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할 여지가 다분히 크다. 행장에 기록된 내용의 전기적 실체를 통해 당시 여성의 삶과 일상을 재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시선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2.3 수용과 향유

행장은 개인의 삶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사적, 개인적 글이지만 묘지명44)의 원자료 역할을 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수용, 향유되면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공적, 사회적 글이기도 하다. 행장 작성자는 개인이 아니라 가문의 입장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인물로서 어머니를 인식하며 가문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는 등45) 행장에 여러 목적을 담기도

42) 이덕수, **“蓋先妣酷愛文學”**, **「先妣墓誌」**, 『서당사재』 권9.
43) 이덕수, **“恒言吾子孫中 苟有能文學者 吾之愛重”**, **「先妣墓誌」**, 『서당사재』 권9.
44) 심경호, 한문 산문에서 묘지명은 **公器**로 강조되었다. 「한문산문 연구에 관한 몇 가지 제안」, 『동방한문학』 제31집, 동방한문학회, 2006, 14쪽.
45) 집안의 정치적 성향 특히 당파에 대한 가문의 입장 등이 표명되는 여성 행장들이

하였다.

남유용은 “내가 일찍이 서포공이 지으신 대부인 윤씨의 행장을 읽고 감탄하며 말하기를, ‘부인은 과부였는데도 두루 알고 예를 좋아하셨고, 이로써 그 두 아들을 가르치시니 어엿하게 위인 명사가 된 것이다.’”46)라고 하였고 조현명은 의뢰받은 여성의 묘지명을 쓰면서 “이제 그 어머니의 행장을 읽어보니 참으로 그 딸에 그 어머니이다.”47)라고 하여 남성들도 여성의 삶을 알기 위해 여성 행장을 읽은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머니 행장이 시대를 거쳐 수용, 향유되고 있으며 여성 독자뿐만 아니라 남성 독자를 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만중은 “손수 언행록 한 통을 기록하여 몇 장의 종이에 나누어 베껴서 여러 조카들에게 남겨주고자 한다.”48)라고 하여 어머니 행장을 교육용 독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드러냈다. 김만중의 어머니 행장은 한글본도 따로 존재하는데 이는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민익수는 「이부인언행록」을 한문으로 지으면서 “새로 시집온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모범적인 삶을 본받게 하기”49)위해서라고 작성 목적을 밝혔다. 이 언행록의 한글본 「정경부인이씨행록」50)또한 여성의 교육 자료로 읽혔던 것으로 보인다.

행장 작성의 목적이 묘지명을 부탁하기 위한 용도인 만큼 의뢰받은 남성이 1차 독자가 되지만 특별히 묘지명을 부탁받은 경우가 아니라도 여성 행장을 독서물로 읽었고, 한글본으로 필사되어 유통되고 향유되면서 여성 독자에게 모범적인 규범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있는데 여성 행장을 통해 가문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며 가족 구성원의 결속을 의도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연구 과제이기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46) 남유용, 「김숙인 애사」, 3권 260쪽.

47) 조현명, 「정부인 이씨 묘지명」, 3권 57쪽.

48) 김경미 외 역주,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권 365쪽.

49) 민익수, “藏于家且念子婦初來未能逮事先妣仍令朝夕省覽得以想象典刑以爲似續妣祖之基云.” <李夫人行錄>

50) 민익수, 「이부인행록」, 국립중앙도서관.

규훈서가 직접적으로 규범을 제시한 반면 행장은 寶鑑류처럼 모범적인 인물의 행실을 들어 보여줌으로써 학습자가 본받게 하는 방식의 규훈서 역할을 하였다. 행장의 수용과 향유는 행장 작성자가 독자층을 의식하고 그에 맞는 글쓰기 내용과 수사법을 선택하며 글쓰기 전략을 세우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3. 아들이 인정하는 어머니의 삶

어머니 행장에는 사부모(事父母), 사구고(事舅姑), 사부(事夫), 자녀 교육, 봉제사, 치산, 어노비(御奴婢), 접빈객(接賓客) 등의 항목이 거의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다. 모든 방면에서 부덕(婦德)을 갖춘 전형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 외에 아들이 인정하고 기록한 어머니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3.1 지적 능력 • 문자 생활 •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인정

김주신의 어머니 풍양 조씨 부인(1633~1684)[51]은 "여섯 살 때 한글을 떼자 한자를 배우고 싶어 하셨다. 8,9세 무렵에 처음으로 사촌 형제들이 읽던 책을 듣기만 하고도 외우셨는데, 아주 자세해 빠진 글자가 없었고", "유학을 매우 숭상"한 여성으로 기록된다.

안정복의 어머니[52]는 "돌이 되었을 때 말을 할 줄 알았다. 종들이 절구질을 하면서 숫자를 세며 서로 장난하는 것을 보고 어머님이 따라 하셨는데 1에서 10까지 수를 헤아리는 것이 틀림이 없었다. 6세에 우리말과 언문을 깨치고 7, 8세에는 어른을 대신하여 편지를 썼다."

김주신과 안정복처럼 어머니의 교육과 지적 능력을 나이별로 구체적으

51) 김주신, 「어머니 행장」, 7권 93쪽.
52) 안정복, 「어머니 공인 이씨 행장」, 3권 284쪽.

로 언급하는가 하면 어깨 너머 교육[53]에서부터 강론을 듣고[54] 평설이 가능[55]한 수준에 오를 정도로 교육 받았던 사실을 언급하는 등 18세기 행장에는 어머니가 받은 교육 내용 등에 대한 기록이 많아진다.

특히 평설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랐다는 것은 단순히 피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적 능력에 대한 언급 다음에는 "글을 읽고 쓰는 법을 알았는데 안으로 숨기고 드러내지 않아 비록 형제라도 거의 보지 못했다."[56]는 언급이 동반된다.[57] 이는 여성의 지적 능력이 지속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혼 전까지로 제한함으로써 유교 사회의 젠더 차별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고자 했던 당대 남성의 인식을 반영한다.

하지만 여성의 글 쓰고 말하는 능력을 제한하려는 남성의 의도와 달리 이들이 편지를 잘 썼고, 서체가 빼어났으며 독서를 좋아했다는 등의 문자 생활과 남편과 자식에 대한 충고, 간접적 정치 참여, 자식 교육[58]과 관련

---

53) 이덕수, "응교공(남자 형제)이 배우는 것은 어머니도 다 어깨 너머로 배우셨다.", 「어머니 행록」, 4권 178쪽.

54) 권두경, "부인은 여공 외에 매일 사촌 형제의 뒤를 좇아 강론을 듣고 경사자집을 섭렵하여 깨닫지 않은 것이 없으니 사람들이 '여자 가운데 큰 유학자'라고 칭했다.", 「어머니 유인 김씨 언행기」, 1권 201쪽.

55) 신경, "경전과 역사에 대략 통하여, 이에 고금의 잘 다스리고 다스리지 못한 인물, 사특하고 바른 정치의 득실, 그리고 성현의 가르침의 뜻이 대의를 모두 통했고 간간이 평설을 하는데 선학께서 논한 것과 들어맞는 것이 많이 있었다.", 「어머니 유사」, 3권 218쪽.

56) 신경, 「어머니 유사」, 3권 218쪽.

57) 권두경, "기억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 무릇 역사책에 기록된 역대 고금의 변화와 어진 사람과 군자의 출처의 자취를 모두 하나같이 이목에 꿰뚫고 있으며 종신토록 잊지 않았고 집안의 세계와 족파, 멀고 가까운 자손을 더욱 손가락을 가르치듯 정확히 아셨다. 비록 책을 보는 것을 좋아하였지만 또한 한 구의 시나 반행의 글을 짓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으니 대개 그 마음에 내키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유인 김씨 언행기」, 1권 201쪽.

58) 송상기, "성품이 문자를 좋아하셔서 큰 뜻을 대강 통하여 우리들에게 『천자문(千字文)』을 입으로 불러 가르쳐 주시기도 하였고, 당나라 시 절구도 어머니가 해석하신 바에 따라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였다.", 「어머니 행장」, 1권 270쪽.

한 언급을 통하여 숨기고자 했던 진실이 다시 수면으로 드러난다.

> 이부인께서는(여성의 어머니) 총명하고 영특하셨으며 경서와 역사서를 잘 아시고 도리에 대해 통달하셨는데, 어머니를 깊이 사랑하셨지만 일일이 가르쳐 깨닫게 하셨고, 『소미통감』과 『소학』 등의 책을 가져다 날마다 과제를 정해 읽히고 밤에는 읽은 글을 외우도록 했다. 또 천체의 형상을 가리켜 별들의 운행 경로를 알게 하기도 했다. 예부터 내려오는 현명한 부인과 어진 여인에 이르기까지 옳고 그름과 성공과 실패를 차근차근 지도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어머니는 한번 듣고는 바로 기억하여 돌아가실 때까지 잊지 않으실 수 있었으니, 견해가 분명하고 박식하시어 온 집안사람들이 공경하고 탄복했다.[59]

경서와 역사서를 읽고 공부한 어머니(이덕수의 할머니인 한산 이씨)는 자신의 학식을 직접 딸인 이덕수의 어머니(청송 심씨)에게 가르쳤다. 천체의 형상과 별들의 운행 등 천문학에 대한 지식도 전수했다.[60] 딸에 대한 교육이 어머니를 통해 전수되었지만 이덕수는 어머니가 "문장이나 역사, 시문도 대부분 꿰뚫어 아셨지만 입을 다물고 조용히 계셔서 겉으로 마치 모르시는 것 같았다."라고 하여 여성이 자신의 지적 수준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았음을 미덕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집안사람들이 공경하고 탄복할 정도로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드러내기도 하였다."고 하며 앞의 서술과 서로 모순된 사실을 진술하여 무의식적으로 여성의 문자 생활을 드러내고 있다.[61]

---

59) 이덕수, 「어머니 행록」, 4권 175쪽.

60) 이덕수, 「어머니 묘지」, 『서당사재』 권9.

61) 손자인 이산배는 "때로 여동생들과 당시의 삼대작과 「등왕각」, 「적벽부」 따위를 암송했는데 더러 막히어 더듬거릴 때가 있으면 할머니께서 꼭 그 막히는 부분을 지적하시며 기억을 떠올리게 하실 뿐이었고, 그 전편을 다 암송하려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여 지적 수준을 숨기는 여성의 겸손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덕수, 「어머니 행록」, 4권 189쪽.

어머니의 독서와 문자 생활, 평설, 의론 활동은 남편과 아들에 대한 출처, 교우 관계에 대한 충고를 비롯하여 정치적 판단으로 이어지며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창대의 어머니 경주 이씨 부인(1645~1712)은 지적 능력은 물론, 사람을 판단하는 감각이 발달된 여성으로 그려진다. 이씨 부인은 최석정의 아내이고 이경억의 외동딸로 한 집안에 재상이 여섯 명이 나온 명문가의 여성이었다. 영의정이었던 아버지 최석정과 이조판서를 맡았던 막내 숙부가 모여서 관리와 인재의 등용, 그리고 군국(軍國)의 대사(大事), 형벌과 정치같은 중한 일들에 대해 의론하며 어머니의 자문을 구하면 어머니가 한마디 말씀으로 시비와 득실을 가려 두 사람이 칭송하며 따랐다고 한다. 최창대는 막내 숙부가 항상 "우리 형수님이 장부로 나서 조정을 휘두르며 무리를 제압하고 나라를 편안케 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62]라고 했던 말을 들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8세기 어머니 행장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명문가에서 나고 자라 고위직에 오른 남편과 아들을 둔 집안의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집안 여성들의 교육은 일반 여성과는 다른 교육을 받았다. 엄격한 교육과 예절을 배우고 독서와 경험을 통해 정치적 감각을 익히며 그것이 습관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런 여성 여성들도 지적 능력과 학습을 통해 자기실현을 이루는 정도에 오르지는 못했다.[63]

---

62) 최창대, 「어머니 행장」, 7권 404쪽.

63) 17세기 어머니 행장(총11편)은 그 양이 많지 않은데 비해 여성이 그림, 서예 등 문화적 취향을 보였던 사실이 드러나는 반면, 18세기 어머니 행장에서는 그러한 면모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이덕수 어머니 청송 심씨 부인이 나무 가꾸기를 좋아했다는 것과 안정복의 어머니 공인 이씨가 패설 100여 편을 읽었다는 사실 정도를 들 수 있다)그 이유는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 하나는 18세기에 시집살이가 본격화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고 17세기에 비해 유교 이념이 강화되면서 여성의 역할을 집안일로 제한했던 시대적 배경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작성자가 어머니의 덕목을 부각시키기 위해 덜 중요하거나 혹은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의도적으로 개성적인 면모를 보이는 부분에 대한 서술을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3.2 가정의 조화 · 치산에 대한 인정

> 집안에 따로 부엌을 쓰는 식구들이 항상 4,5집은 되었는데, 집집마다 풍족하고 가난한 것이 다르고 성품도 각기 달랐으나 부인은 큰 소리를 내거나 낯빛을 변하는 일이 없이 지극한 정성으로 조화롭게 하니 오래도록 감동하고 탄복하지 않음이 없었고 끝내 이간하는 말이 없었다.64)

> 친족 부녀자 중에 집에서 먹고 사는 자가 늘 대여섯 명은 되니 매번 시비들에게 "가문이 화목하지 못한 것은 종들의 좋지 못한 언행으로 인하여 많이 일어난다. 너희들이 만약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 죄는 죽어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라 경계하니 이 때문에 집안으로 밖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다.
>
> 아버님은 남자 형제가 없고 여동생만 있었는데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자 같은 마을에 사셨다. 유인은 그 뜻을 받들어 우애를 지극히 돈독하게 하여 한 자의 베라도 반드시 나누어 갖고 한 말 되는 곡식이라도 반드시 함께 한 것이 거의 이십 년이었는데 터럭 하나라도 혹여 마음으로 거슬려 하는 것이 없으셨다.65)

위의 예문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18세기에는 한 집안에 여러 세대, 형제가 함께 모여 대가족을 이루고 산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여성이 가정에서 해야 할 일과 책임 또한 늘어났다.

집집마다 사는 형편과 방식, 성품도 달랐던 4,5가족이 함께 살면서 아무런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작성자는 어머니의 정성으로 조화를 이루고 살 수 있었다고 함으로써 그러한 갈등과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은폐한다.

이재형은 어머니가 집안의 종이 다른 집안의 종과 어울리며 전하는 말로 이간질이 발생할까봐 종의 단속을 엄격히 함으로써 집안의 화목을 위

---

64) 민익수의 「이부인행록」을 바탕으로 이재가 행장을 지었다. 동일한 여성에 대한 서술이므로 이재의 행장을 인용한다. 이재, 「외숙모 정경부인 연안 이씨 행장」, 6권 102쪽.
65) 이재형, 「생모 유인 허씨 가장」, 7권 247쪽.

해 애쓴 사실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웃에 사는 시누이에게는 늘 아낌없이 경제적 도움을 주어 우애를 지키고자 하였음을 밝혔다.

이처럼 어머니는 가족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갈등과 분란을 배려와 양보로 해결하는 여성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을 조화롭게 포용하는 여성은 감정이 거세된 여성으로 형상화됨으로써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언급이 따른다.

이덕수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온 집안사람들이 "부인의 마음속에는 본래 '노'(怒)라는 글자가 없으셨다."라고 했고, 자손들도 "걱정과 슬픔, 기쁨과 즐거움이 비록 번갈아 가며 그 앞에 닥쳤어도 태연하게 대처하시니,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오광운의 어머니는 "비록 속으로는 애를 태우셨을지라도 얼굴을 찌푸리거나 근심하시는 모습이 없었다."[66]고 했다. 아들은 어머니를 이처럼 감정이 거세되고 절제 가능한 여성,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삭이며 스스로 해결하는 여성으로 만듦으로써 남편 생일에 찾아온 기생첩을 거두고,[67] 서매의 병간호를 지성껏 하며 가정의 조화와 화목을 위해 희생할 수 있었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 한 집에 여러 식구가 살았고 동서의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기다렸다. 궁벽한 시골에 사는 가난한 친척들 가운데 배가 고파 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셀 수 없을 정도였다. 효헌공은 일일이 도와주기를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을 구분하여 나누어 주고 적당하게 조처하는 것은 어머님이 하셨다. 매번 새벽에 앉아서 문을 열어 종들에게 할 일을 나누어 주고 책상에서 부리시면 날이 저물녘에 이르렀다. 어머님은 좌우에 술을 권하는데 지체함이 없었고 가난하고 군색함을 생각해 근심을 드러내지 않으셨다. 집안 살림을 경영하는 것이 큰일이었지만 그 수고로움을 드러내지 않으셨다.[68]

66) 오광운, 「어머니 행장」, 2권 248쪽.
67) 이덕수, 「어머니 행록」, 4권 179쪽.

여러 가족이 함께 살면서 정서적으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 못지않게 경제적 지원 또한 필요했다. 많은 어머니들이 "길쌈과 바느질로 집안 경제를 담당했으나 아버지나 시부모가 알지 못하게 했다"는 언급은 어머니의 치산 활동을 서술할 때 일종의 공식구로 사용된다. 집안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노동력은 가족과 집안을 유지시키는데 절대적이고 매우 중요한 임무이다. 하지만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가장이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이 일이 그리 중요하지 않거나 최소한 '덜 중요한'일로 인식될 가능성을 제공한다.[69] 노동력 제공이라는 임무에 수반되는 권리나 요구 또한 자연스레 차단당하게 된다.

치산을 주도하였지만 친척과 조건 없이 나누거나 양보하는 행위는 "천성이 담박하셔서 일생 동안 무엇을 부러워한다든가 특별히 좋아하고 욕심내시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며 먹을 것, 입을 것, 보석 등에 대한 소유에 무관심[70]하고 자신에게는 인색한 인품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처럼 어머니의 희생을 동반한 돌봄과 노동의 행위에 대해 아들은 어머니를 감정이 거세되고 물질에 담박한 사람으로 그려냄으로써 가정의 조화가 성립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아들의 무관심과 무심한 성격으로 어머니의 감정을 읽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어머니의 고민과 갈등을 회피하거나 부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남성의 시선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3 유교 이념 수호 · 실천에 대한 인정

행장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사족 신분으로 『소학』, 『내훈』 등을 통해 젠더적 교육을 받고 성장하여 유교 이념을 내면화한 여성들이다. 아들은 어

68) 조귀명, 「어머니 행장」, 1권 467쪽.
69) 임상덕의 어머니는 사후에 치산의 공을 남편에 의해 인정받았다. 임상덕, 「친어머니 공인 전주 이씨 행장」, 6권 230쪽.
70) 이덕수, 「어머니 행록」, 4권 180쪽.

머니가 유교 이념을 수호하고 실천하며 그것을 다른 여성에게 독려하였던 면모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기록하였다.

> "아녀자의 행실은 옳은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이 오로지 술과 밥 만드는 일만 한다"고 하셨다. 항상 부녀자들에게 "부인의 악덕으로는 투기가 으뜸이다. 투기가 심해지면 못할 일이 없게 되고 결국은 남편에게 누를 끼치게 되니 어찌 조심하지 않겠는가"라고 경계하셨다.71)

> 일찍이 "여자의 천한 행실은 질투하는 것보다 지나친 것이 없다."라고 하시며 매번 세속 부인들의 투기하고 사나운 마음을 부끄럽게 여기시고 착한 사람을 보면 감탄하시며 스스로 미치지 못할까 눈썹을 찌푸리며 걱정하셨다. 지식과 멀리 생각하고 시비를 분별하는 능력이 실로 대장부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일찍이 책을 읽지는 않았으나 때때로 고금의 일을 말씀하시고 출입에 대한 의리는 항상 삼강행실을 취해 정성껏 자녀를 위해 말씀하셨다.72)

> 부인이 만년에 우수에게 이르길,
> "내가 태어나자 어진 부모가 계셨는데 부모님이 모두 어질고 효성스럽다고 친척들에게 칭송을 받으셨고, 자라서는 남편을 받들었는데 그의 명망과 덕을 세상에서 중히 여겼으며, 내가 재주도 없으면서 40년간 살림을 맡았으나 다행히 죄를 얻지 않았다. 나이 들어서는 너희들이 또 어그러진 행동을 하지 않아서 집안을 이어가리라는 바람을 가지게 되니 나는 삼종지도에 있어서 거의 유감이 없다."73)

안정복의 어머니는 지적 소양이 풍부한 여성이었지만 스스로 여성의

---

71) 안정복, 「어머니 공인 이씨 행장」, 3권 284쪽.
72) 권두경, 「어머니 유인 김씨 언행기」, 1권 201쪽.
73) 이재, 「외숙모 정경부인 연안 이씨 행장」, 6권 102쪽.

직분을 '唯酒食是議'[74]에 한정하며 유교 사회에서 인정하는 여성의 역할에 동조하며 투기를 최고의 악덕으로 비난하고 있다. 권두경의 어머니도 질투는 가장 천한 일이라며 다른 여성들을 경계하였다.

칠거지악에 속하지만 당위성에 대한 근거가 가장 부족한 항목인 투기 금지는 "남편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여성 스스로의 발언을 통해 근거를 얻는다. 질투는 여성의 본능적 감정이 아니라 천한 행실이기 때문에 금기해야 한다는 권두경 어머니의 발언 역시 투기를 본질적으로 금지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민익수의 어머니 연안 이씨의 언급은 '삼종지도'의 삶을 살았던 자기 인정에 대한 서술이다. 자신의 인생을 유감이 없다고 생각한 이씨는 "여형공의 가법을 매우 사모하여, 여러 자식들이 말을 배우면 직접 외워서 가르쳤다. 천성이 유학을 좋아했는데, 일찍이 꿈에 정주를 뵙고 매번 여러 자식들을 경계"[75]했던 여성으로서 그의 이 말은 시간이 흐른 후 손녀의 입을 통해 다시 반복된다.[76]

유교 사회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주장된 유교 이념과 규범을 내면화한 모습을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은, 미드에 의하면, 일반화된 타자의 내면화를 단순한 수용이 아닌 인정행위로 해석된다. 즉 단순하게 타자의 정체성이 나에게 와서 각인되고 나는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나의 주관을 통해 조직하고 인정하는 것이다.[77]

---

74) 『詩經』, 「小雅」, <斯干>.

75) 이재, 「외숙모 정경부인 연안 이씨 행장」, 6권 102쪽.

76) 이씨의 손녀인 민우수의 딸은 "부녀자에게는 삼종의 의리가 있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법은 없다. 집안에 설령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의리에 크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로 힘써 따라야 한다. 일이 있기 전에 미처 경계하지 못하고 일이 닥쳤을 때 이기려고 애쓰면서 서로 양보하지 않는다면 다만 장부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자신의 과오를 불리는 것이니, 이쪽이나 저쪽이나 양편에 모두 득이 될 것이 없다."라고 하며 할머니의 삼종지도의 가르침을 이어 여성은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보다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유언호, 「부인 유사」, 2권 428쪽.

77) 이현재, 「도시적 여성 혐오에 나타난 왜곡된 인정의 논리-과열된 성취인정과 인정이데올로기화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27권 3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6, 300쪽.

투기 금지는 남성의 축첩 인정과 서자의 보살핌이라는 행위와 연관된다. 여성들은 정처의 지위를 보장받고자 하는 현실적인 선택을 위해 이를 감수하고자 하였다. 개인의 성취가 차단된 사회에서 아내, 며느리, 어머니로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삼종지도 역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었다.

행장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대부분 상층 가문의 딸로 태어나 젠더적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유교 이념의 수호와 실행에서 찾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젠더 관계의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제도적 물질적 차원의 변화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 말은 이데올로기적 인정을 통해 여성은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를 실현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조건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인정 안에서의 젠더 관계는 기존의 젠더 정체성을 고정시키고 이 집단적 정체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화시키고자 하는 내부의 목소리를 잠재우며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가 될 뿐이다.[78]이러한 점에서 18세기 사족 여성의 유교 이념 수호와 실천에 관한 인정은 젠더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데 일조했다는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母子의 인정 행위: ‘인정받기’와 ‘인정하기’

어머니는 행장을 통해 자신의 삶이 기억되고 ‘인정받기’ 원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행장을 작성한 아들은 ‘인정하기’를 통해 어머니의 삶을 자신의 시선에 의거하여 기록하였다.

아들이 행장을 작성하는 행위 자체에 어머니에 대한 인정이 전제된다. 아들은 집안 어른, 시부모, 남편 등 가족 구성원부터 종과 이웃, 스님[79],

78) 이현재, 『여성혐오 그 후』, 들녘, 2016, 104쪽.
79) 이덕수, “스님이 ‘과연 여자 가운데 보살이십니다.’라고 하였다.”, 「어머니 행록」, 4권 273면.

왕후[8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81]에 의해 어머니가 인정받았다고 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기도 한다. 이들을 통해 어머니는 여사, 여군자, 여자 가운데 보살, 큰 유학자, 성인, 성녀[82] 등의 인정 수사로 칭찬된다.

앞에서 18세기에 여성 행장이 증가하는 이유로 양반가의 위선 사업을 잠깐 언급했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1744년 민익수는 여흥 민문이 명문으로 성장한 과정과 가격(家格)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문의 질서를 정비해 나갔다. 민익수는 시조부터 22세에 이르기까지 명망 있는 조상들의 사적과 행적, 일화 등을 작성하였는데[83] 이 가운데 여성 인물로는 유일하게 그의 어머니 연안 이씨를 기록하였다.[84] 연안 이씨는 이미 세상에서 규방의 모범으로 여기는 분으로 인정받으며[85]다른 여성의 삶에도 영향을 주었다.

민익수는 자신의 어머니의 삶을 다른 남성 조상과 동등하게 인정하였다.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 타인의 인정을 욕망하게 된다.[86] 민익수의 어머니 연안 이씨 또한 꿈에서 주자를 만나볼 정도로 '유학을 숭상하고' '삼종지도'라는 유교 이념에 순응하며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김주신의 어머니 풍양 조씨는 생전에 작은 상자에 부모님과 시부모님

---

80) 김춘택, "궁중의 고례에 가례를 치르는 저녁에 반드시 복과 덕이 있는 부인을 선택하여 동궁과 동궁빈의 이부자리를 받들어 펴도록 하였다. 모든 여관들이 해당하는 자를 의논하였는데 인현왕후께서 '김판서의 부인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셨다.", 「어머니 행록」, 7권 428면.

81) 이만운, "부인의 어진 덕에 대한 칭송은 먼 곳에서나 가까운 곳에서나 신뢰를 얻었다.", 「정부인에 추증된 어머니 김씨 행록」, 2권 669쪽.

82) 임상덕, 「친어머니 공인 전주 이씨 행장」, 6권 230쪽.

83) 김명숙, 「『여흥민씨가승기략』을 통해 본 17-18세기 여흥 민문의 형성과 가문 정비」, 『한국 사상과 문화』 제46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277-315쪽.

84) 민익수의 어머니 연안 이씨의 행장인 「이부인 행록」이 『여흥민씨가승기략』 권4에 실려 있다.

85) 유언호, "정암(민우수)의 어머니 이부인은 세상에서 규방의 모범으로 여기는 분이다.", 「부인 유사」, 2권 426쪽. 유언호는 이씨 부인의 손자 사위이다.

86) 이현재, 앞의 글, 304쪽.

의 손편지를 넣어 봉하고 겹으로 싸서 잘 넣어두었다가 죽으면 관 속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부인이 돌아가신 후 열어보니 부모님과 시부모님 편지 외에 외할아버지 이시백의 편지와 친할머니의 편지도 있었다.[87]풍양 조씨의 친정과 시집의 가문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남달랐던 면을 볼 수 있으며 그녀의 삶의 방식 또한 짐작이 된다.

민익수 어머니 연안 이씨와 김주신 어머니 풍양 조씨[88]는 조선 사회의 젠더 차별에서 예외는 아니었지만 최상층의 신분이었던 만큼 유교 사회에서 누리는 기득권 또한 갖고 있었다. 특히 유교 사회에서 노년의 상층 여성들은 '家母'의 지위를 누리며 남성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

18세기에는 이미 신사임당[89]을 비롯하여 김만중의 어머니 윤씨 부인, 이현일의 어머니 장씨 부인 등이 행장을 통해 알려졌고 역사적 어머니로 널리 인정받았다. 다른 여성의 삶을 행장을 통해 경험한 여성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어머니로 남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학문적 업적이나 정치적 행위 등을 통한 성취가 근원적으로 금지된 사회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인정받기 위한 유일한 길은 당대가 요구하는 삶을 살아 역사적으로 기억되는 것이었음을 인식하고 실천했을 것이다. 양반 여성들은 유교 사회의 바람직한 여성상/어머니 상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으로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이런 점에서 어머니 행장은 조선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욕망[90]과 가문의 격을 높이는데 일조한 어머니의 공로를

87) 김주신, 「어머니 행장」, 7권 93쪽.

88) 두 여성을 대표적으로 거론하지만 이덕수 어머니, 최창대 어머니 등 행장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어머니로 보아도 무방하다.

89) 황윤석은 대상 여성을 향해, "아! 이천의 어머니 상곡군 후부인과 율곡의 어머니 사임당 신부인을 유인과 같다고 말하면 충분하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18세기에 사임당을 정주의 어머니 후부인과 동격으로 인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인 연안 김씨 행장」, 2권 377쪽.

인정한 아들의 욕구가 결합한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5. 맺는 말

어머니 행장은 어머니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인정한 아들에 의해 작성된 글이다. 어머니의 일상적 언행을 세세히 기술한 (언)행록이나 유사를 바탕으로 행장이 지어지고 이 행장은 다시 묘지명 작성의 자료로 활용된다. (언)행록이나 유사는 서사가 풍부하고 서술 내용과 기술이 상세하다. 다양한 내용은 (언)행록→ 행장→ 묘지명의 단계를 거치면서 작성자의 판단과 시선에 의해 요약되며 개인적인 내용 보다 모범이 되고 교훈이 될 만한 내용 위주로 선별된다.

아들은 어머니의 삶을 기록하여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불효를 면해야 한다는 의무감, 사실을 기록한다는 작가로서의 사명감, 후세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전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어머니 행장을 작성했다. 여성 행장은 남성 행장과 달리 과거 합격 혹은 정계 진출 등과 같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취가 아니라 가정 내 가족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작성자의 시선과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다분히 크다. 행장에 기록된 여성의 생애를 통해 전기적 실체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와 시선을 갖고 행장을 썼는지 헤아릴 필요가 있다.

남성이나 여성 모두 여성 행장을 독서물로 인식했다. 여성 독자를 배려해 한문본 외에 한글본이 제작되고 향유되면서 어머니 행장의 주인공은 다른 여성에게 규범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여성으로 자리하게 된다.

---

90) 여성들 스스로 여성의 삶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권만, "우리 여자들이 무식하지만 시누이의 의로운 행실이 민멸됨이 한스러운 일이란 것은 또한 안다. 지금 너희가 어머니를 위해 행장을 짓고 명을 짓는다니, 아, 이제 우리 시누이가 불후하겠구나!", 「돌아가신 영인 풍양 조씨의 행록」, 2권 197쪽.

어머니 행장을 작성하는 아들은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삶과 언행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아들은 어머니의 교육과 지적 능력, 정치적 참여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자기실현을 이루는 단계로 이어지는 것은 제한하여 남성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였다. 가정의 조화와 화목을 위해 구성원을 돌보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감정과 물욕을 드러내지 않으며 희생과 수고로움을 과시하지 않기에 가능했다고 하여 여성이 겪었을 갈등과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했다. 아들은 유교 이념을 수호하고 실천하는 어머니에 대해 인정하였지만 유교 사회의 젠더 위계를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인정이었다.

어머니는 행장을 통해 자신의 삶이 기억되고 '인정받기' 원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행장을 작성한 아들은 '인정하기'를 통해 어머니의 삶을 자신의 시선에 의거하여 기록하였다. 하지만 아들은 조건적이고 제한된 인정을 하였고, 어머니가 유교 이념을 실천하며 젠더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에 대해 받았던 인정은 젠더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데 일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18세기는 국가 주도하에 유교적 이념이 개인의 생활에서 실행되던 시기로 여성들의 가정 내의 역할과 의무가 과중해졌으나 한편으로 여성들은 그 가운데서 자신의 입지를 찾는 방법을 모색하며 정착해나갔다. 남성들은 이러한 여성을 통해 가격(家格)을 높이고 가문의 명예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18세기 어머니 행장은 자신의 삶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욕망과 가문의 격을 높이는데 일조한 어머니의 공로를 인정한 아들의 욕구가 결합한 글쓰기이다.

어머니 행장의 특징은 아버지 행장(先考行狀)과 남성 행장의 비교를 통해 보다 선명히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 행장은 19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작성되었다. 19세기에는 양반 여성뿐만 아니라 향촌 여성을 대상으로 한 행장이 지어지고 행장에 담긴 내용도 달라진다. 시기별로 행장의 내용과 특징의 차이를 살피면 해당 시기의 특징이 뚜렷이 드러날 것

이다. 이는 후속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자료

황수연 외 역주,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권~8권, 보고사, 2010.

김경미 외 역주,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4권, 보고사, 2006.

민익수, <李夫人行錄> 『여흥민씨가승기략』 권4, 국립중앙도서관.

_____, <정경부인이씨언행록>, 규장각.

2. 단행본

김경미, 『家와 여성: 18세기 여성 생활과 문화』, 여이연, 2012, 15-42쪽.

이현재, 『여성혐오 그 후: 우리가 만난 비체들』, 들녘, 2016, 81-110쪽.

3. 논문

김명숙, 「<이부인행록>을 통해 본 조선조 양반가 여성의 삶」, 『동양고전연구』 제39집, 동양고전학회, 2015, 133-161쪽.

김명숙, 「『여흥민씨가승기략』을 통해 본 17-18세기 여흥 민문의 형성과 가문 정비」, 『한국 사상과 문화』 제46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277-315쪽.

김세서리아, 「율곡의 <선비 행장(先妣行狀)에 대한 여성주의 독해-사임당의 보살핌 행위와 여성주의 보살핌의 윤리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30권, (사)율곡연구원, 2015, 93-118쪽.

김영, 「한글 필사본 <광산김씨연행록>의 자료적 고찰」,『인문사회』 21, 제8권 1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473-486쪽.

김현미, 「19세기 선비행장류 글에 형상화된 어머니의 가르침-자녀 교육 태도와 교육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439-467쪽.

심경호, 「한문산문 연구에 관한 몇 가지 제안」, 『동방한문학』 제31집, 동방한문학회, 2006, 14쪽.

이경하, 「망실행장류 연구」, 『한국문화』 40집,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1-26쪽.

_____, 「彤管의 전통, 그 일상의 정치」, 『국문학연구』 제15호, 국문학회, 2007, 82쪽.

이규대, 「<선비전주이씨행장>을 통해 본 18세기 여성의 생활상」, 『역사민속학』 25, 한국역사 민속학회, 2007, 203-233쪽.

이지양, 「조선조 후기 사대부가 기록한 아내의 일생-행장 26편으로 본 내조의 힘」, 『인간·환경·미래』 제7호,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11, 31-57쪽.

이승희,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 <선비정부인박시유수>의 자료적 고찰」, 『한국문화』 75집,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6, 97-125쪽.

이현재, 「도시적 여성 혐오에 나타난 왜곡된 인정의 논리-과열된 성취인정과 인정이 이데올로기화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27권 3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6, 293-328쪽.

한희숙, 「조선 후기 양반여성의 생활과 여성리더십-17세기 행장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9집, 한국여성사학회, 2008, 1-48쪽.

황수연, 「17세기 사족 여성의 생활과 문화」, 『한국고전여성문학』 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161-192쪽.

황윤정, 「가문 질서의 재생산으로서 여성 행장의 글쓰기 방식 연구-김만중의 <선비정경부인행장>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5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547-580쪽.

Abstract

The study about the records of a deceased mother (Haengjang) in the 18th
: the focus on the mother and son's recognition act

Hwang, Su-yeon

I examined mother 's Haengjang of 18th century focusing on recognition of mother and son. Mothers' intellectual ability and literacy leads to indirect political participation. The son was willing to limit the role of women not revealing mother's writing. Sons acknowledged that their mother's sacrifice and economic activity. They suggests that it could be possible by shaping them as an insensible and unselfish person. Sons acknowledged them as a woman who practiced and conformed Confucian order. But these women have helped to reproduce sexual discrimination ideology. The mother wanted to "being recognized" and the son recorded them through "recognition." Mother's Haengjang is the writing that combines the desire of mother and son.

Key words : Mother, Son, 18th century, the records of a deceased mother's life(Haengjang), Recognition

■ 본 논문은 2017년 7월 13일에 접수되어 2017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7년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